

고구려살림집의 특징에 대한 분석

조 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축에서 내용을 떠난 민족적특성이란 없으며 민족적특성과 관계없는 형식이란 있을수 없다. 건축에서 민족적특성은 주로 형식을 통하여 반영되며 민족적형식은 민족적특성을 표현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404페이지)

살림집은 매개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 해당 민족의 심리적특성과 감정정서, 생활풍습과 취미를 비롯한 인간생활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그 형식과 내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살림집은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르며 민족적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살림집의 특징을 통하여 전통적인 조선민족살림집형식의 유구성과 살림집발전에 깃든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고구려살림집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살림집의 골격형성과 그에 따르는 살림집지붕형식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살림집외형모습을 잘 나타내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살림집의 골격형성을 보면 주춧돌기초우에 나무를 기본재료로 한 기둥보식으로 집의 외형을 형성하고 산자벽을 위주로 하여 벽체를 만들었다.

주춧돌기초시설은 고구려의 동대자집자리를 비롯한 집안일대의 집자리들과 안학궁터, 정릉사터, 만수대건물터, 금강사터, 산성자산성건물터 등의 유적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와 함께 옛 문헌에 고주몽이 일곱모난 바위돌우의 소나무아래에 유물을 감추었는데 그의 아들인 유류가 집의 기둥과 주춧돌사이에서 이 유물을 찾아냈다고 한 기록은 당시 고구려살림집이 주춧돌을 기초로 하고 그우에 나무기둥을 세워 골격을 형성하고있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류리명왕)

고구려살림집의 기둥은 살림집의 구조를 일정하게 보여주는 고구려무덤의 형식과 벽화에 그려진 여러가지 기둥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고구려무덤건축에 쓰인 기둥과 무덤벽화에 그려진 기둥들을 보면 우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차 굽어진 홀림기둥, 기둥의 밑으로부터 2/3지점을 굽게 한 배부른기둥, 기둥아래우의 크기가 같은 곧은기둥이 기본으로 되어있었으며 그 굽기는 주춧돌의 크기와 건물에 따라 알맞게 정해져있었다.

고구려집자리들에서 주춧돌외에 살림집골격형성을 위한 그 어떤 건축재료도 나오지 않는것은 고구려의 살림집기둥과 벽체의 재료가 나무나 흙으로 되어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즉 고구려인민들은 주춧돌기초를 견고하게 한 다음 그우에 나무를 다듬어 기둥을 세우고 보와 도리, 서까래를 리용하여 견고한 집을 일떠세웠으며 토벽을 하여 집의 외형을 마감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주변나라들의 벽돌이나 돌 또는 판자를 기본재료로 한 살림집과는 달리 주춧돌우에 세운 목조기둥보식의 살림집이 고구려시기에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살림집으로서 민족적특징을 뚜렷이 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다시말하여 통나무나 돌, 벽돌을 재료로 한 유럽의 귀틀집과 흙벽돌집, 흙이나 벽돌을 재료로 한 중국의 흙벽돌집과 평옥집, 나무를 재료로 한 아시아나라들의 다락집, 뜰집, 배집, 아프리카의 천막이나 흙벽돌집과 대비하여볼 때 고구려의 살림집은 고구려가 위치한 자연기후조건과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배산림수한 곳에 산에 혼한 나무를 기본재료로 지은 조선민족의 전

통적인 목조기둥보식 지상살림집이었다.

고구려살림집은 지붕형식에서도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있었다.

고구려살림집지붕은 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배지붕으로 되어있었으며 모든 지붕의 룡마루, 박공마루, 추녀마루, 처마 등에 곡선이 이루어져있고 그에 따라 지붕량면경사도 유연한 곡선을 짓고있다. 이러한 지붕모습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것은 쌍기둥무덤 앞칸 왼쪽앞벽의 합각지붕그림과 고구려사람 가서일 등이 그린 천수국을 밑그림으로 하여 수를 놓은 《천수국수장》의 합각지붕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지붕형태가 잘 묘사되어있었는데 룡마루, 추녀마루, 처마의 선들이 곡선을 이루어 조선식지붕형식을 잘 나타내고있었다. 그리고 고국원왕릉벽화에는 우진각지붕을 한 경리시설건물이 그려져있었는데 지붕내림마루의 선들은 유연한 곡선을 이루고있었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 그려진 이러한 지붕형식은 극소수 지배계급의 집에 국한된것이기 는 하지만 지붕의 선들은 눈과 비바람으로부터 살림집의 기초와 벽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든 안우리곡선과 조로곡선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으로서 고구려살림집의 독특한 지붕형식을 잘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당시 이웃나라들의 살림집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지붕형식이었다.

중국의 살림집이나 건물의 지붕형식은 북주시기의 석굴인 돈황296호석굴의 관청건물 그림, 257호석굴의 궁성도, 249호석굴의 성곽도, 285호석굴의 궁성도 등 벽화들에 반영되어있는데 이 건물의 지붕선들은 모두 차를 대고 그은듯이 직선으로 묘사되어있었다.

이 석굴벽화의 건물그림들은 모두 5~6세기 북조제통나라들의것으로서 고구려와 같은 시기의것들이다. 결국 이 석굴벽화에 그려진 건물의 지붕은 고구려살림집이나 건물의 곡선적인 지붕과는 대조적인 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 사천성박물관에 소장된 성도교외에서 드러난 동한의 화상벽돌에 새겨진 건물의 지붕, 사천성 목마산의 동한무덤에서 나온 건물명기의 지붕들도 모두 직선으로 되어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지붕선들은 곧은 형식이였으며 당나라초에 이르러 지붕요소들에 점차 곡선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끝부분에서 강한 곡선을 이루는것으로서 고구려살림집지붕과는 다른 형식이었다.

일본건물의 지붕형식도 고구려살림집지붕형식과는 달랐다.

8세기 전반기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보존되어있는 법륭사 동원지붕의 모든 요소들은 직선으로 되어있으며 곡선을 이루고있는 경우에도 추녀끝에서 약간 알릴뿐이다. 그후 일본건물의 지붕은 룡마루와 처마에 약간의 곡선이 생기고 추녀끝에서 강한 곡선형태를 이루었다.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나라들의 건물들에는 당시 고구려의 지붕형식과 비교할것이 없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고구려살림집의 골격형성과 건물의 곡선적인 지붕형식은 당시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적인 면을 잘 반영하면서 전통적이면서도 민족적인 우리 나라 살림집의 특성을 뚜렷이 하고있었다고 할수 있다.

고구려살림집의 특징은 다음으로 살림집의 난방시설과 그에 따르는 방구성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방안생활풍습을 반영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령역안에서 드러난 구들시설로는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중강군 토성리, 평안남도 북창군 대평리, 함경남도 함주군 신하리, 길림성 집안시 동대자유적의 집자리를 비롯하여 평안북도 태천군 룡오리산성안의 건물터와 평양시 력포구역의 동명왕릉앞 정룡사의 건

물터에서 드러난 구들시설 등을 들수 있다. 이 구들시설들은 모두 우리 민족의 앉아생활하는 풍습에 맞게 창안된 고래가 낮은 고대의 외고래구들시설을 계승발전시킨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로남리유적 2호집자리 1호의 구들은 강돌로 만든 것이었는데 구들고래의 높이는 0.25m, 너비는 0.3m 정도이고 구들고래의 동서길이는 2.8m로서 그 동쪽끝에서 남쪽으로 직각이 되게 꺾어 고래를 형성하였다. 2호의 온돌은 동서길이가 2.6m, 남쪽으로 꺾인 부분의 길이가 2.3m였다.

토성리유적 4구 집자리에서도 ㄱ자모양의 외고래구들시설이 발견되었는데 그 길이는 6m, 너비는 0.4m, 높이는 0.25~0.3m였고 대평리유적의 아래층 2호집자리 구들고래너비는 15~20cm, 높이는 10cm였으며 가운데층 3호집자리 구들시설의 너비는 1.2m, 길이는 2.5m였다.

동대자유적에서는 동서의 두 방에 ㄱ자모양으로 된 구들시설들이 각각 1개씩 있었는데 동쪽방의것은 외고래구들이었고 서쪽방의것은 두고래구들이었다.

함주군 신하리집자리의 온돌고래는 방바닥을 15cm 정도로 파고 바닥에 진흙다짐을 5cm 정도의 두께로 한 다음 기와조각을 겹쌓아 고래벽을 만들었으며 고래너비는 35cm 정도였다.

이러한 유적들을 종합해보면 고구려살림집에서는 구들고래를 15cm 또는 20~25cm로 낮게 하면서도 구들고래의 벽체가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쌓아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구들고래가 외고래로부터 두고래로 변화되고 그 넓이가 확장되어 전면구들로 변화발전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의 구들난방풍습은 벽화무덤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약수리벽화무덤에는 부뚜막아궁과 그와 연결된 고래구들, 밖으로 나간 굴뚝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고국원왕릉동쪽결칸의 부엌칸그림에는 부뚜막아궁과 그우의 솔우에서 시루로 음식을 찌내고 있는 녀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긴 구들고래는 《구당서》에서 보이는 《장강(긴고래구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구당서》고려(고구려)전에서는 고구려사람들이 겨울에는 모두 장강(긴구들고래)을 만들고 그 밑에 불을 지피 열을 얻어낸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당서》권199 상 렬전동이 고려(고구려))

이것은 결국 구들난방풍습이 추위를 막기 위한 고구려사람들의 생활적인 요구로부터 하나의 풍습으로 전통화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함께 구들난방풍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다는 것은 고구려에서 구들난방풍습이 일반화되어 살림집난방시설로 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살림집에서 구들난방시설은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에 맞게 방바닥 밑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살림방의 방바닥은 신발을 벗고 방을 나드는데 편리하게 방바닥 전체 면적이 하나와 같이 반듯하고 고르롭게 되어 있었으며 일단 방안에 들어서면 아무 곳이나 편안히 울방자를 틀고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살림집의 구들난방풍습은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과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에 맞게 방바닥 밑에 설치되면서도 앞선 시기의 고래가 낮은 외고래구들로부터 고래의 길이를 길게 한 꺾임식고래로, 두 고래온돌로 발전하고 일반화된 고유한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살림집에서도 난방시설은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고구려와 린접한 중국에서 한족이 쓰던 캉은 아궁목과 고래가 꺾이지 않고 곧추

련결되어있으며 고래가 높아 방안의 한쪽 측면에 하나의 시설물로 설치되고 그우에 걸터 앉을수 있게 되어있는 난방시설이었다.

이 난방시설은 고구려의 온돌보다 고래가 높아 많은 연료가 요구되었으며 그 시설자체가 방바닥이 아니라 살림방의 어느 한 벽에 의지하여 설치하거나 랑쪽 벽쪽으로 갈라 설치하였으므로 고래의 길이도 짧았다. 그러므로 난방시설이 없는 가운데부분에는 통로를 내고 신을 벗지 않고도 방안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굴뚝시설도 온돌고래가 높은것으로 하여 고구려의 굴뚝시설과는 달리 그 구경도 넓은 형태였다.

이처럼 고구려의 온돌과 중국의 캉은 아궁과 온돌시설, 굴뚝이 갖추어진 서로 비슷한 난방시설이었으나 그 형식과 유형은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있었다.

일본의 고분시대 살림집난방은 방가운데서 솥을 피우는 정방형의 이로리로서 흙바닥가까이에 마루바닥을 사방 1m정도 또는 너비 1m, 길이 1.5~2m정도 되게 따내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화독형식의 난방시설이었다. 이것은 이로리의 사명이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은 지리적조건과 일본살림집의 대부분이 말쪽에 의하여 높아진 마루바닥과 높아지지 않은 흙바닥으로 되어있는 조건에 맞게 방안의 난방을 보장하면서도 습기를 방지하는데 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었다고 볼수 있다.

난방리용을 보면 이로리는 부분난방수단으로서 온기보장과 연기배출이 다 한곳에서 진행되면서 화독주위에 직접 둘러앉아 불을 쪼이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신을 벗고 방안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고구려와 같으나 난방시설의 설치와 리용풍습은 고구려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즉 이로리는 뚫어앉아 생활하는 일본사람들의 풍습으로부터 생겨난 난방시설이었다.

한편 당시 유럽의 난방형식은 벽난로에 불을 때는 빼찌까형식이었다.

고대로마의 도시였던 뿔빼이에서 용암에 묻힌 A.D.1세기 헤르쿠라네움의 살림집난방은 벽난로시설이었다. 이 벽난로는 아궁에서 불을 때고 그우에서 음식을 끓이며 벽체를 통하여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되어있었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난방시설이 서로 다른것은 해당 지역의 자연기후조건과 매개 민족의 독특한 기호, 생활풍습에 맞게 난방을 보장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보게 된다.

고구려와 이웃한 나라들의 난방시설을 비교해볼 때 고래가 낮은 고구려의 바닥난방시설은 그 구조와 열리용의 효과성, 위생성 등이 잘 보장된 우수한것으로서 당시 서방이나 동방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유한 온돌난방형식이었다.

고구려살림집은 방구성에서도 부엌과 살림방을 비롯한 여러개의 방으로 구분되면서도 음식가공과 난방보장을 동시에 할수 있는 구들난방의 특성에 맞게 부엌에 련이어 방들이 배치되고 리용되었다.

고구려무덤벽화에 반영된 살림집그림이나 유적에서 보이는 살림집들은 모두 부엌과 방들이 세분화되어있으면서도 생활공간들이 집중적으로 련이어 배치되어있던 흔적을 잘 나타내고있다. 그리고 문헌기록에 살림집뒤에 사위집을 두며 살림집좌우에 큰 집을 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것과 고구려의 살림집들에 작은 창고가 있다고 한것은 당시 살림집형태가 다양할뿐아니라 가정생활과 생산활동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삼국지)위서 권30 고구려)

이처럼 살림집의 난방시설과 그에 따르는 방구성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살림집생활풍습의 유구성과 함께 고구려살림집의 고유한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있었다.